

환경경영,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절실

대한상공회의소 김효성 상근부회장

환경경영을 전화위부의 계기로 만든 외국의 CEO들은 환경을 단순히 비용유발 요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이를 경영에 활용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뒀다. 얼마 전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 한 외국인 CEO는 "21세기의 CEO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을 세우는데 환경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의 시대로 불리는 금세기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영성적을 쫓기보다는 CEO의 경영비전과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사실 우리 기업 CEO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데에 급급해서인지 아직까지 환경문제를 '돈 먹는 하마' 쪽으로 여기고 환경경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경영을 전화위부의 계기로 만든 외국의 CEO들은 환경을 단순히 비용유발 요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이를 경영에 활용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뒀다.

부실한 경영실적에 허덕이던 미국 정유회사 아르코(ARCO)의 CEO인 쿡(Cook)은 청정휘발유 개발을 통해 1990년 매출액을 1986년의 네 배인 199억달러로 끌어올려 환경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또 1984년 인도의 보팔에서 미증유의 환경참사를 일으켜 주가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미국 화학회사 유니언카바이드(Union Carbide)의 CEO인 앤더슨(Anderson)은 환경감사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화학업계의 선두주자로 복귀할 수 있었다.

선진국 기업 CEO들의 리더십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환경에 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환경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앞서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사실 우리 기업 CEO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데에 급급해서인지 아직까지 환경문제를 '돈 먹는 하마' 쪽으로 여기고 환경경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경영을 전화위부의 계기로 만든 외국의 CEO들은 환경을 단순히 비용유발 요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이를 경영에 활용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뒀다.

정부규제의 준수를 넘어 오염물질의 배출과 폐기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훨씬 비용효과적인 기업을 추구하고 있다.

'환경'은 이제 기업평가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환경성'을 심사기준의 하나로 삼는다. 소비자들은 상품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 구매한다. 선진국들은 수입품에 대해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아니면 수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공장설비나 발전소 등 플랜트를 수출할 때 수입국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수출지원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환경친화인증을 받았거나 오염저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에코펀드(eco-fund)가 조성되기도 했다. 환경 관련주들의 높은 성장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증권업계 전반에 폭넓게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교토의정서 이행안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차이는 환경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차국 자동차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기후변화협약의 세부 이행방안인 교토 의정서 타결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자자동차 상용화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은 자동차산업의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이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속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통찰과 결단력이 중요하다.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CEO는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에다 최고환경경영자(Chief Environmental Officer)의 역할까지 겸해야 한다.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기업들을 보면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난다. 이들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너 교수는 진정한 리더십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고 경영자의 소극적인 환경경영은 일류기업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본고는 '내경포럼'에 기고한 글의 전문입니다>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속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통찰과 결단력이 중요하다.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CEO는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에다 최고환경경영자(Chief Environmental Officer)의 역할까지 겸해야 한다.